


 금융위원회	보 도 설 명	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8.2.(월)	

책 임 자	금융위 보험과장 이 동 엽(02-2100-2960)	담 당 자	권 진 웅 사무관 (02-2100-2961)
	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양 해 환(02-3145-7460)		조 한 선 팀장 (02-3145-7466)

제 목 : 외화보험은 제도개선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  
 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  
 (한국경제 8.3일자 가판보도에 대한 설명)

## 1. 기사내용

- ☐ 한국경제는 8월 3일자 가판 「달러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」 등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최근 ‘환테크’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달러보험의 가입 문턱이 확 높아진다. 실수요자나 외화 투자 경험을 갖춘 전문투자자가 아니면 가입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.”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.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☐ 외화보험은 환율변동에 따른 금전적 손실위험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고위험 상품으로,
-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, 외화보험의 보장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보험업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.
- 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